



정읍 외국인 계절근로자 45명 문화체험 진행

정읍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45명이 떡을 만들고 내장산 숲길을 걸으며 일터의 피로를 풀고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지난 25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지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타국에서 농촌의 일손을 돕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들은 숲터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서 떡 만들기과 유리병 속 작은 정원(테라리움)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어 내장산 숲길을 걷고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를 찾아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았다.

정읍실내체육관에서는 근로자들이 함께 농구 경기를 즐기며 서로 친목을 다지고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풀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타국에서 일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문화체험을 통해 달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경찰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캠페인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한솔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읍경찰서, 한솔초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내 30km/h 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 안전도 '착', 방학지시등 '착' 등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스쿨존 30km/h 서행 표시가 된 교통안전 우산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올바른 보행 자세와 스쿨존 내 주의사항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도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 원데이클래스 운영

부안군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6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원데이클래스 '반려식물 만들기'를 50명의 면민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일상 속에서 식물을 가까이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어 면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각 25명씩 면민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호아와 안시리움을 함께 심어 자신만의 반려식물을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병원,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개최

‘진료에 신뢰를, 청렴에 진심을’ 주제로… 직원·내원객 함께 청렴문화 확산 ‘한마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6일 호츠허기전문질 환센터 앞 로비에서 임직원과 내원객이 함께하는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상임감사 정경복)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병원과 내원객이 청렴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 정착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전 직원 참여로 선정된 청렴 혁신 슬로건 '진료에 신뢰를, 청렴에 진심을'을 주제로 진행됐다. 각 부서는 업무 현장에서 발굴하고 실천한 청렴 개선 사례를 전시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례를 살펴본 뒤 가장 공감하는 우수사례에 직접 투표하며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직원과 내원객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칭찬 스티커 투표'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공정·투명·정직·존중·책임 등 병원이 지향하는 청렴 가치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붙이며 청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대병원 감사실은 올해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스티커 진단 △청렴 혁신 슬로건 공모전 △청렴 포스터 제작 △청렴 TF 운영△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작 △부서별 청렴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청렴 활동과 우수사례



를 직원과 내원객에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참여·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경복 상임감사는 "청렴은 제도와 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조직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며 "청렴 공감의 날이 서로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청렴은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본이자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우수한 청렴 실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민원실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진행

남원시는 26일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친절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에는 한명숙 남원시의회의 의장이 강사로, 한 의장은 의원으로서 시민들과 만나며 청취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숙 의장은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저마다 다른 사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친절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친절교육에 이어 청렴교육에서는 직원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원칙에 충실한 민원행정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표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친절·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공직윤리를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취약시설 대상 현장 행정지도 실시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으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관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도를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행정지도는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가 밀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남원노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철희 남원소방서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세밀히 살피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 방문에서 남철희 서장은 병원 내 주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및 인명대피 유도 계획 검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안전계자 대상 화재 예방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어르신 전동스쿠터 안전 운전 당부

남원소방서는 최근 관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 되는 전동스쿠터 및 의료용 보장구(이하 전동차) 안전사고가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과 운전자들의 철저한 주의와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남원소방서는 전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 운행 자제 및 야간 반사지·동화장치 부착하고, 경사진 길이나 내리막길, 좁은 골목길 진입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끌고 건너야 함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내장상동, 주민 손으로 내년 자치사업 4건 확정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영수)가 주민투표를 통해 작은영화제와 가족 문화체험 등 2027년 자치사업 4건을 확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상동 공공플러스센터 3층 드림마루에서 '2026년 제6회 내장상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주민자치회 소개와 2026년 활동 성과 보고, 2027년 자치사업 안전 설명회와 토론, 주민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후보 사업은 지난 7월 27일부터 12일간 진행한 주민자치사업 공모와 분과별 논의를 거쳐 발굴됐다.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에 총회 당일 현장투표를 합산해 사업 순위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내장상동 작은영화제 '달빛 스크린' △동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문화체험 △아이와 함께 문화체험



△주민자치회 선진사례 교류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4건이 최종 가결됐다. 선정된 사업은 세부 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올해 상반기 자전거도로 주변에 인동덩굴을 심어 주민 쉼터를 정비하고 동민 화합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우리 동네 작은 영화제'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이웃 간 교류도 넓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272-9417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호지지사						
010-6645-9935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